

▶ 소비자·가족자원경영분과

기혼직장인의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정수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석사)

이기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오늘날 직장과 가정은 양립이 불가능한 양자택일의 두 영역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영역이 되고 있다. 직장과 관련한 성공에 대한 인식이 변해 직장 뿐 아니라 가정도 중요시되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삶 속에서 조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 남녀 37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분석, T-test, ANOVA,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정의 상호작용 정도를 직장의 가정에의 긍정적 작용, 직장의 가정에의 부정적 작용, 가정의 직장에의 긍정적 작용, 가정의 직장에의 부정적 작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혼 직장인은 가정에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방향에 관계없이 양 방향 모두 부정적 작용보다는 긍정적 작용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네 유형 중 가정이 직장에 주는 긍정적 작용 정도는 가장 컸으며, 반면에 가정이 직장에 주는 부정적 작용은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정의 직장에의 긍정적 작용에 있어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적 변수, 가족관련변수, 직장관련변수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선 개인적 변수 중 관리능력이 직장-가정의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에 비해 경영전문직은 직장의 가정에의 부정적 작용을, 그리고 자영업은 가정의 직장에의 부정적 작용을 더 크게 느꼈다. 가족관련변수는 직장-가정의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변수 중 자녀지지변수와 배우자지지변수는 직장의 가정에의 긍정적 작용과, 가정의 직장에의 긍정적 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직장-가정의 조화를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가족변수 중 가족응집성은 가정의 직장에의 긍정적 작용에는 정적 영향을, 직장의 가정에의 부정적 작용과 가정의 직장에의 부정적 작용에는 부적 영향을 미쳐 직장-가정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직장관련 변수를 보면 상사의 지원이 직장의 가정에의 긍정적 작용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가 직장의 가정에의 부정적 작용과 가정의 직장에의 부정적 작용에 부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직장-가정간의 갈등을 감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